

나는 해양수산부를 이렇게 이끌고 있다 (2)

국민적 시각으로 판단

장관직을 수행하면서 느낀 점 중의 하나가 국회의원직을 거치길 참 잘했다 라는 것입니다.

제 방은 국회에서 가장 늦게까지 불 켜져 있는 방으로 유명했습니다.

옆집 아저씨 이미지처럼 뭐든지 잘 해결해 줄 것 같은 건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믿음 때문인지

유달리 제겐 많은 민원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문제들을 처리하고자 연구하고, 공부하면서 얻은 것은 '다양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국민적 시각'이었습니다.

갈고 닦은 국민적 시각으로써 해수부 현안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최대한 논리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이길 바라면서요.

지시보다는 대화와 토론으로

정부부처 직원들은 민원인 집단이 오면 장관과의 만남에 선을 두려고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도 직급이 낮은 친구들은 초기엔 대면조차 부담스러워 하더군요.

세계 보고되는 현안들은 몇 단계를 거쳐 올라오기 때문에 판단자의 시각이

묻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일단 만나자. 만나서 직접 면담하면서 벽을 허물자'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이고 '현장의 목소리'라고 생각합니다.

되는 쪽으로 가라

A라는 과제가 주어졌을 때 사람들은 크게 두가지로 반응합니다.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니까 안될 것 같은데요.'

'이런 점도 저런 점도 있지만, 최대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겠습니다.'

일단은 '결과가 정당한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정당하다면 최대한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해보지도 않고 미리 포기하는 것은 나약함이나 게으름을 의미합니다.

적극적으로 사고하고 진취적인 행동으로 문제해결을 하는 방식을 해수부 직원들에게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산업의 전망

저는 예측 가능한 정책을 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 수산업에 뛰어들어든 사람이 '5년 뒤 내 사업은 어떻게 될까?'

'20년 후 나의 모습은 어떻게 변해 있을까?' 그러 볼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의 비전부터 구체화시켜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큰 그림을 그리지 않으면 해당 산업은 흔들릴 수 밖에 없습니다.

예측 가능한 정부, 예측 가능한 정책이 되도록 기틀을 다지고,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해양수산부의 '신바람나는 개혁, 소리없는 변화'를 기대해 주십시오.